

6·25전쟁 시 카투사 제도와 유엔 참전 부대로의 확대

文 官 鉉*

1. 머 리 말
2. 6·25전쟁과 카투사제도의 성립
3. 유엔군 참전과 카투사 배속
4. 참전국별 카투사 배속 사례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50년 6·25전쟁 중 도입된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 제도는 이후에도 58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군사 동맹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효과적으로 매듭짓기 위해 카투사와 비

슷한 군사 제도를 이라크에 도입하자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두될 정도로 카투사 제도는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¹⁾ 또 한반도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주한미군 지휘관 대다수가 카투사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1973년 9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 동두천 소재 캠프 케이시(Casey) 소재 미 제2사단 32보병연대 1대대장을 역임한 콜린 파월 전(前) 미국 국무장관은 1997년 발간한 자서전 ‘나의 미국 여행’(My American Journey)에서 한 장(章)을 할애해 “카투사들은 내가 지휘해 본 가장 훌륭한 군인에 속한다. 그들은 절대 술 취한 채 나타나지 않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없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군기가 있었으며 지식 습득 능력이 우수했다”라며 카투사들을 칭찬하였다.²⁾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조찬을 함께 하기 위해 숙소인 영빈관을 찾아온 파월 국무 장관에게 “저서에서 카투사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넸을 정도로 카투사 제도는 관심의 대상이었다.³⁾

카투사 제도의 역사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존 무초 주한 미국 대사가 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논의한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일부를 미군에 배속시킬 것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제안하였다. 미군 부대에 배속받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던 카투사들이 민간인과 적군 포로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수집해내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진지를 구축하는데 제 몫을 해냈다. 카투사들은 인천상륙작전과 원산상륙작전, 혜산진 점령, 장진호 전투, 편치볼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군은 카투사 제도의 효용성을 충분히 인정한 나머지 미군 편제에 배속됐던 유엔군 부대들에 카투사들을 재배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43,660명의 카투사들이 유엔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고

1) 인터넷 <http://www.johntreed.com>(검색일 2008년 6월 12일).

2) 류진, 『콜린파월자서전』, 샘터, 1997년, p. 281.

3) 이형삼, 『신동아』, 동아일보사, 2001년 5월호.

* 연합뉴스 기자

이 가운데 11,36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 처리되었다.

하지만 카투사들이 미군이 아닌 유엔군 일원으로서 각종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군이 유엔군을 주도한 탓에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 배속되었던 한국군 요원 정도로 인식되었고 그나마 당당하게 전투에 참여했다기보다 미군들에 대한 전투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정도로 과소평가되었다. 심지어 유엔 참전국 부대에 파견됐던 카투사 당사자들도 어떤 명목으로 자신들이 피부 색깔과 지휘체계 등이 생소한 외국군 부대에서 복무하게 됐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자신들이 카투사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이 이번 논문작성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영연방 부대들에 배속된 카트콤(KATCOM: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Commonwealth division)과 재일학도의용군들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휴전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유엔군들은 차례로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였던 카투사들이 미군 부대 또는 한국군으로 복귀하면서 카투사들의 활동 무대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로 한정되었다. 여전히 카투사 제도가 존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한·미 양국은 나름대로 필요성에 따라 카투사 제도를 전후(戰後)에도 그대로 존속시켰다.

하지만 카투사 제도를 학문적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국과 미국이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를사록 부록 B항에 “[...] 대한민국 국군과 군사 편성은 600,000명의 대한민국 군인 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한다. 차 목적에는 국방부[...] 미합중국 한국인 부대(카투사) 및 [...] 기타 모든 군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현역 군사 편성에서 미합중국이 승인하고 인정한 제 조직체의 군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카투사라는 용어가 최초로 공식 문서에 등장하였을 정도다.⁴⁾

4) 김영철,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증원군(카투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년), p. 14.

그만큼 6·25전쟁 중 카투사 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학술적 접근도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회 도서관에 보관중인 카투사 제도에 관련된 17개 학위논문 작성자들은 대부분 카투사 업무를 담당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교들이며 연구 주제는 주로 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 등을 다루고 있다. ‘카투사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박희만, 2001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과 ‘카투사 선발 제도에 관한 연구: 선발 방법을 중심으로’(김수성, 1995년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은 실무를 담당할 지휘관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군사제도인 카투사가 전쟁을 배경으로 어떻게 탄생했고 유지되었으며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업적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2. 6·25전쟁과 카투사제도의 성립

카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것은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연합군 사령관에게 보낸 작전지휘권(Operation Control) 이양 서한이다.

카투사 제도 성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은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무초였다. 당시 김태선 서울경찰국장이 대전이북 지역에서 전투 경찰을 지휘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무초 대사는 위켜 장군에게 경찰 병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건의하였다. 바로 한국 경찰을 전투부대로 편성시켜 적의 잠입을 막아내거나 무너진 방어선을 메우고 후방에서 적의 위장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3개 중대로 편성된 국립경찰 화랑대대가 카투사들이 선발되기 한 달 전에 미군 부대에 배속돼 일본 요코하마에서 훈련을 마치고 미7사단에 배치되었다. 이들 화랑대대 병력은

인천상륙작전에도 참가하였다.⁵⁾ 1950년 8월 1일 오후 대구에 임시 작전지 휘소를 마련하고 있던 미1기병사단 7연대 1대대 본부에 간부급 한국 경찰관 4명이 133명의 경찰관을 이끌고 찾아간 사례도 확인되었다.⁶⁾ 한국 경찰대대는 각 분대에 2명씩 배치되었고 삼각고지 전투에서 2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나 보행이 어려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후송되기를 거부하였다.⁷⁾ 애플만은 국립경찰 화랑대대를 카투사 제도의 호시(嚆矢)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는 1949년 8월 6일 의무병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을 공포하고 1950년 2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281호인 병역법 시행을 발표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사단관 내 병원(兵員)에 대해 사단장이 징집이나 소집을 명령해 해당 사단에 충원하는 이른바 사관구제(師管區制)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1950년 3월 15일 지방 병무행정기관인 병사구사령부(兵事區司令部)가 폐지되는 등 징병체제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는 7월 중순 편성관구사령부(編成管區司令部)를 설치해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병력 보충에 나섰다.

이러한 보충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 헌병대와 국민방위군, 경찰, 대한청년단 등에 의해 징집이 실시되었다. 1950년 8월 15일을 전후해 미군 부대에 증원된 한국군 병력이라는 의미로 카투사제도가 공식화됐다.⁸⁾ 8월 15일을 전후해 주로 피난민들이 몰려 있던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불심 검문을 통한 징집이 이뤄졌다. 심지어 피난민 숙소를 급습해 자고 있던 장정들을 징집하는 이른바 '토끼사냥' 방식도 불사하였다.

참전 카투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징집의 기준은 소총을 어깨에 걸었을 때 땅에 닿지 않는 신체 조건으로 그것만 갖추면 무조건 징집하였다. 자신의

5) 참전용사 이정환 인터뷰(2008년, 5월 1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소재 자택).

6) 서울신문, 『주한미군 30년사』(서울: 서울신문사, 1979년), p. 252.

7)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U. S. Army in the Korean W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p. 386.

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p. 347.

입영 명령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도 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배에는 책가방을 든 소년병도 있었으며 앓고 있는 부인의 약을 사 가지고 그대로 끌려온 병사도 있었다.⁹⁾ 대구 명신중 3학년이 재학 중이던 김현석(金鉉石, 군번 K1101970)은 당시 15세에 불과해 징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8월 중순 거리에서 모병관에게 끌려가 영문도 모른 채 소년병으로서 일본행 선박에 올라탔다.¹⁰⁾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0년 8월 16일 최초의 카투사 313명이 부산을 출발해 8월 18일 일본 요코하마항에 도착하였다. 일본에 도착한 카투사들은 열차 편을 이용해 후지산 기슭의 고텐바(御殿場) 역으로 이동하였다. 미 제7사단이 카투사 훈련을 위해 텐트를 치고 준비하던 곳이었다. 이곳에서 면역처리 과정을 거치고 미군 피복이 지급되었다. 미군들은 이들을 카투사(KATUSA), 한국 신병(Korean recruits), 한국인(Korean nationals), 한국군(ROK troops), 한국 병사(ROK soldiers) 등으로 불렀다. 마지막 병력 보충선이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것은 8월 24일이었으며 일본행 선박에 승선한 한국군 보충병은 전체 사단 병력 24,845명 가운데 8,637명에 달하였다.¹¹⁾

미 제7사단에 배치된 카투사들에게는 카투사 고유 군번인 'K-'로 시작하는 군번이 주어졌고 다시 군번에 따라 중대 배속이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나중에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카투사 가운데 군번은 부여되었지만 병적에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도 못 받고 진급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 육군 총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다. 육군본부는 1951년 4월 1일에야 육군 전체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 제7사단 병적을 조사해 이들을 한국 육군에 포함시켰다.¹²⁾ 하지만 구포리에서 훈련을

9) 서울신문, 위의 책, p. 254.

10) 류형석 편저, 6·25 참전소년병 참전수기 『우리들의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서울: 교육문화원, 2005년), pp. 250-251.

11) 쉬나벨은 8,652명으로 파악하였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 168.

마치고 미 제2사단, 미 제24사단, 미 제25사단과 제1기병사단에 배치되었던 카투사들의 사정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다.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던 미 제7사단과 달리 나머지 미군 부대에는 8월 20일부터 한국군 신병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징집당한 후 일본으로 향하지 않고 부산 구포리에 설치된 제3신병훈련소에서 미군 부대에 곧바로 배치되었다.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은 250명씩, 미 제1기병사단은 249명을 받았으며 매일 250명의 카투사들이 미군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후에 카투사는 소총중대 및 포대에 100명씩 배정됐고 각 사단은 4일마다 500명씩 총 8,300명을 보충받았다.

미군은 카투사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음에는 미군 1명과 카투사 1명씩 짝을 짓는 버디 시스템(Buddy system: 同志組) 운용을 계획했으나 언어와 생활 습관에서부터 식사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군인들의 차이는 이 제도의 실행에 어려움을 안겨줬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에게 카투사들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다. 한국의 지리와 기후에 익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유능한 안내자가 되었고 방어진지를 찾아내거나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일은 거의 카투사들이 도맡아 하였다. 또한 전투기술을 익히기면서 적과 두려움 없이 싸우는 용감한 모습은 미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많은 미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갖은 역할을 카투사들에게 일임하였다. 위험이 따르는 수색 정찰이나 안전 순찰에는 카투사들을 앞세웠고 박격포와 무반동총, 탄약 등 무거운 병기류 운반도 카투사들의 몫이었다. 일부 지휘관들은 전투 시에도 미군을 가운데 두고 그 주변에 카투사들을 배치하는 사례도 있었다.¹³⁾

그리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한국인 지원단(KSC: Korean Service Corps)

12) 이창호 예비역소장(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인사과장) 인터뷰(2008년 5월 24일 경기도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자택).

13) 참전용사 이정환 인터뷰(200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소재 자택).

의 역할과 규모도 증대되자 부산 군수사령부는 8월 중 사령부 내에 노무과를 신설해 노무자를 관리하였다. 당시 미군 사단에는 평균 500여 명의 노무자들이 배치되었고 이들은 보급소에서 전방 부대까지 도로가 발달되지 못한 산악 지대에서 지게로 탄약과 식량 등 보급품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실어 날랐기 때문에 속칭 '지게부대'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었던 1950년 9월 15일 미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18,944명이 미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¹⁴⁾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9월 1일 강제징집을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9월 5일 한국군은 육군본부 고급부관실에 'US 인사과'를 설치해 유엔군에 파견된 카투사들의 진급과 휴가, 전역 등 인사 업무를 취급하도록 조치하였다.¹⁵⁾ 당시 US 인사과는 육군본부 인사과와는 별도의 건물에 설치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안시홍 US 인사과장(당시 중령)을 비롯 6~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였다.

3. 유엔군 참전과 카투사 배속

(1) 카투사와 카트콤

한국 정부가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인력이었다. 전쟁 초기 미군의 심각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인을 직접 미군 부대에 배속시키려는 노력이 결국 카투사 제도의 탄생을 불러왔다. 당

14) David C. Skaggs, "The KATUSA Experiment: 1950-1965," Military Affairs, vol. 38, no. 2(april 1974), p. 54.

15) 한국전쟁 당시 육군본부 인사과장 이창호 예비역 소장 인터뷰(2008년 5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자택).

시 한국군은 10만병제라는 제약을 지니고 있었고 병력을 증강시키더라도 미군의 군수 지원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군 부대에 한국군을 파견하였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카투사 인가 수를 28,000명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면서 카투사들이 포대나 연대급 전투단, 기술 부대, 지원 부대 등과 같은 비사단급에서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클라크 장군은 카투사 프로그램의 확대, 유지를 옹호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⁶⁾

“카투사 요원을 미군과 연합군 부대에 배속시킴으로써 그들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한국군 부대에 복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 이 인원들은 미군 병사가 부족한 부대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미군과 연합군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놓는데 기여하고 있다. 카투사 병사들이 대부분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의 병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카투사가 미군과 연합군이 전선으로부터 계속 교체되어 나오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의 사상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클라크 장군의 주장은 카투사들을 미군 부대 뿐만이 아닌 연합군 부대에도 배속시켰다는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뒷받침한다.

영국군은 개전 초기부터 6·25전쟁에 참여한 영연방 부대들을 통합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영연방 부대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군사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고 지휘체계와 장비, 탄약 등까지 영국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영연방군 통합 논의는 중공군 개입으로 주춤했으나 1951년 5월 캐나다군 제25여단 주력부대가 도착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미8군은 영연방 제29여단을 경기도 적성 일대에 배치하였고 영연방 제28여단을 미 제1군단에

16) David C. Skaggs, The KATUSA Experiment: 1950-1955, Military affairs, vol. 38, p. 55.

배속시켜 전곡 남쪽을 담당토록 했고 캐나다 제25여단을 임진강 남쪽에 배치해 한강 이남의 적성-도감포를 잇는 영연방군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1951년 7월 28일 미8군 사령관과 주일 영연방 총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덕정에서 영연방 제1사단 창설식이 거행되었다. 영국의 차셀스 장군이 초대 사령관에 임명된 영연방 제1사단은 영연방 제28·29여단, 캐나다 제25여단이 주축을 형성하였고 캐나다 제2포병대대, 뉴질랜드 제16포병대대, 영국군 제45포병대대, 영국군 제170경포중대, 호주 제11대공포중대, 영국군 제8전차대대, 캐나다 전차대대, 영국군 제28야전공병대대, 캐나다 제57야전공병중대, 영국군 제64건설공병중대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영연방 제1사단은 미군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는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다.

앞서 영국군이 서부 전선에 배치되고 압록강을 향해 진격했을 때 카투사 요원 30명이 배치된 상태였다. 당시 카투사들은 최전방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하기보다 여단 본부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영국군 여단이 사단규모로 승격함에 따라 한국군은 이미 파견 나와 있던 정규호 소령 이외에 연락장교 4명과 한국군 병사 1,000명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당시 연락장교들은 정 소령과 통역장교 김성진, 주동운, 손상섭, 민창기 대위 그리고 경리장교(성명 미상) 1명 등이었다. 정 소령은 한국군 배속 요원들에 대한 명칭을 카투사 대신 카트콤(KATCOM: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Commonwealth division)이라고 불렀다. 그는 카투사라는 명칭을 카트콤으로 바꾸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지휘체계에 편입되기를 꺼려하는 영국 특유의 자존심도 일정 작용했다고 증언하였다.¹⁷⁾

당시 카트콤은 영국군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전투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했으나 월급은 파견 나온 한국군 경리장교를 통해 한국군 육군본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카트콤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이듬해 영연방 사단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17) 정규호 전화 인터뷰(2008년 5월 26일 미국 시카고 자택과 국제전화 인터뷰).

(2) 재일학도의용군 참전

재일학도의용군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6·25전쟁에 참여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이들이 미군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로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당시 유엔군 초대 연락단장을 맡았던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자서전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 등에서 확인되었다. 강 전 국무총리는 2008년 5월 중순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하여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이 우리 편에 있으니 절망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 군에 들어오는 보충병과 미군 보충병(카투사, KATUSA) 모집에 한국 청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또 다수의 주일 한국 교포 학생들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돕기 위해 카투사로서 미군 부대에 입대하여 한국 전선에 투입되었다.”¹⁸⁾

모두 642명에 달하는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6·25전쟁에 참여했지만 한꺼번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미군에 의해 몇 차례로, 지역별로 나뉘어 한반도에 투입되었다.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은 1950년 8월 5일 민단 중앙본부에 ‘자원병 지도본부’를 설치해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의 지원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원병들이 줄을 이어 78명이 1950년 9월 8일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에 위치한 제1기병사단의 미8군 보충훈련소(US 8th Army Replacement Training Center, 일명 캠프 Drake)에 입소하였다.¹⁹⁾ 당시 캠프 Drake는 미 본토에서 전속해 오는 미군 신병들을 일본 각지의 미군 부대로 보내기 전에 대기시키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미군은 재일동포 학생들을 2개 소대로 편성했지만 총을 들고 실제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식 구령과 상관에게 경례하는 방법, 제식 훈련 등을 받는 수준에 그쳤다. 캠프 Drake에서는 자원자들을 모집해 4진까지 배출하였다. 1950년 9월 12일 재일학도의용군 제1진 78명이 일본 요코하마(横浜)항을 출발해 미군 수송선 피닉스호(Phoenix)를 타고 같은 달 16일 인천 인근 해상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한 1~2진은 군번도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외신에서는 ‘유령부대’라고 부르는 사례도 발생하였다.²⁰⁾ 미7사단과 미3사단에 배속된 3진에게는 당시 카투사 고유 군번인 K군번이 주어졌다. 4진으로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최성규 지도부장(군번 0219498)은 부산 소재 제2훈련소를 거쳐 당시 창설된 한국군 제9사단(일명 백마부대)에 배속되었고 작전 부사관으로 근무해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다. 최 부장은 “4진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군 부대가 아닌 한국군에 배속되었다”면서 “한국말이 서툴렀으나 일본에서의 고졸 학력을 높이 평가해 장교 신분을 제외받았으나 사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본 간토(關東) 지역 위주로 재일학도병 선발 작업이 진행되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일본’(西日本) 지역에서도 재일학도병 선발이 이뤄졌다. 1950년 9월 18일 오이타(大分)현 벳부(別府)에 있는 미 제8068보충대대(일명 캠프 모리)에는 오카야마(岡山)현 서쪽지역 이른바 ‘서일본’ 지역에서 자원한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이 이 보충대에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45일 동안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마친 이들에게는 다른 재일학도병과는 달리 K-118301에서 K-118352까지의 군번이 주어졌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재일동포 청년학생들은 대부분 미 제3사단에 카투사로 배속되었다.

또 1950년 10월 30일 이미 전투부대에 배속돼 다른 곳으로 이동한 카투사

18) 강영훈,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서울: 동아일보사, 2008), p. 157.

19)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광혜면 총무부장 인터뷰(2008년 7월 1일, 서울 여의도 동지회 사무실).

20)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한동일 부회장 인터뷰(2008년 7월 1일, 서울 여의도 동지회 사무실).

들을 제외한 323명을 중심으로 '3·1독립보병대대'(31st Korean Volunteer Battalion)를 창설하였다.

유엔군 사령부는 1951년 4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재일학도의용군에게 전역명령을 하달하였다. 재일학도의용군은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일본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으나 1952년 4월 28일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재일학도의용군의 일본 입국은 금지되었다. 1952년 2월 대한해운공사 소속의 원주호(原州號)를 타고 26명이 귀일(歸日)한 것이 마지막이었다.²¹⁾

전쟁이 끝나고 예비역 중령으로 예편한 지미 고자와는 3·1독립대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회 샘 하야카와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1977년 5월 10일자로 '캘리포니아 주의회 결의안'(결의안 제248호)을 통과 시켰다.

<표 1> 재일학도의용군 소속부대와 주요전투

한국군 부대	미군 부대
제1·2·3·6·8·9·11·15·22·27·29·30·37·50사단, 제1·2훈련소, 육군보병학교, 육군 제1103야전공병단, 제603경장비중대, 거제도포로수용소 경비대, 육군65사단 비행대, 육군본부 항공대, 제77비행대 정비중대, 제6비행기 정비대대, 제1군사령부 항공과, 공군 제10 전투비행대대	미8군 제3병참기지사령부, 제60본부중대, 제45부대, 제19병참부대, 제92화기중대, 제65탄약중대, 제330부대, 제10군단, 제2사단, 제3사단, 제7사단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1950년 10월 원산·이원 상륙작전, 1950년 11월 풍산·갑산·혜산진 탈환작전, 1950년 12월 임진강·고량포작전,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1951년 10월 중동부 지구작전(일명 김일성고지 탈환작전), 1952년 10월 백마고지전투, 1953년 3월 저격능선전투, 금화지구전투	

21) 前 재일민단 단장 박병현의 회고록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을 멈춰 서서』(서울: 재외동포재단, 2007년), p. 88.

4. 참전국별 카투사 배속 사례

(1) 미국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6·26 결의'에 근거해 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였고 이는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군 사령관에 의해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6월 29일 한국 전선을 시찰한 맥아더 사령관은 지상군 투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전선시찰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제출하였다. 지상군의 파견도 맥아더 사령관에게 일임되자 미국은 명실 공히 육·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맥아더 사령관은 주일미군 중 규슈(九州)에 주둔 중이던 미24사단을 한국에 파견하도록 명령하였고 선발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Smith)가 7월 1일 부산 수영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같은 달 5일 오전 오산 전투에서 북한군 4사단에 참패를 당하고 이튿날 천안으로 철수하였다.

미 육군은 제24사단 본대와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2사단, 제3사단, 제7사단, 제40사단, 제45사단 등 8개 사단과 2개 연대 전투단, 다수의 지원 부대를 한국전에 투입하였다. 6·25전쟁 기간 중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켰던 것이다. 미군 당국은 일본에 주둔한 미7사단에 대한 병력 보충을 목적으로 1950년 8월 15일 카투사 징집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징집 과정을 거쳐 1950년 8월 16일 최초의 카투사 313명을 태운 일본 배가 부산항을 출발해 8월 18일 일본에 도착하였다. 이 시기에 미 제7사단에 배속된 카투사들의 군번은 'K-'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1기병사단과 2사단, 24사단 등에 배속된 카투사들은 일본에서 교육받지 않고 부산 구포리에 설치된 제3신병훈련소에서 곧장 부대로 배속

되거나 징집된 자들 가운데 자원한 병력들로 충원되었다. 미 제24·25사단은 250명씩, 미 제2사단과 제1기병사단은 249명씩 카투사 요원들을 받아들였다. 미군 정책부가 8월 말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 제1기병사단에는 739명, 미2사단에는 234명, 미24사단에는 949명, 미25사단에는 240명의 카투사들이 배속되었다.²²⁾ 결국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1950년 9월 15일 미군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18,944명의 카투사들이 미군 부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²³⁾

1950년 9월 30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000명의 카투사들이 미군 부대에 배속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 육군 전체 병력이 81,644명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육군 가운데 약 26.95%에 해당되는 병력이 미군 부대에 배속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⁴⁾ 미1기병사단은 카투사들을 보병소대 소총수, 기관총 보조사수, 통신 가설병, 탄약 운반수로 활용하였고 포병대 포소대에서는 측선수와 부대포진 경비 보초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정찰중대 카투사들에게는 소총수, 정찰병, 관측병으로서의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다.

미 제7사단의 경우 인천에 상륙한 후 전투를 치르고 남하해 후방에 남은 적을 소탕하는 임무에 카투사들을 활용하였다. 당시 미군은 전술지도를 일선 부대에 충분히 배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어 회화가 가능한 카투사들이 길 안내를 맡아 부대의 신속한 이동을 도왔다.²⁵⁾

당시 미군은 카투사들을 미군 부대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카투사 1명에 미군 1명을 짝짓는 '버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버디 시스템으로 카투사와 한 조를 이룬 미군은 제식, 소총 조작, 개인위생 분야 등의 책임을 맡았다. 미1기병사단과 미2사단 전체가 버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미25사단 2개 연대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1개 연대는 미군 장

22) Jamens F. Schnabel, 위의 책, p. 168.

23) David C. Skaggs, "KATUSA Experiment: 1950-1955," *military affairs*, vol. 38, No. 2 (APRIL 1974), p. 54.

24)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의 어제와 오늘』, 서울: 1993, p. 56.

25) 참전용사 송백진씨 증언, 위의 책, p. 53.

교와 부사관의 명령을 받는 독립된 카투사 소대를 창설하였다. 미24사단은 한국 장교와 부사관에 의해 지휘되는 분대와 소대를 만들어 운용하였다. 미3사단의 경우 카투사들은 각 미군 중대에 배치됨과 동시에 개별적 소대로 분리되는 이중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카투사들만의 독립 소대를 조직하여 활용하였을 때 카투사들을 통제하기 위해 카투사 중에서 별도로 소대장 혹은 중대장을 선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미7사단 17연대는 이들에게 임시 계급을 부여하였고 한국군 연락장교가 파견될 때까지 각종 업무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²⁶⁾

미 해군은 극동 해군의 통제 아래 제7함대가 작전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및 지원함이 참여해 개전 10일째인 7월 4일부터 북한 해역을 봉쇄하면서 제해권(制海權)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미 해군은 공중 폭격과 함포 사격, 상륙병력 수송, 미 본토로부터 인원과 물자 수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천상륙작전과 흥남 철수작전의 성공은 한국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과로 평가받고 있다.

미 공군은 극동 공군의 지휘 아래 제5공군과 전략폭격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한 폭격과 유엔 지상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 근접지원 작전을 펼쳤다. 미 공군은 초기단계부터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순간까지 끈질기게 적군을 괴롭혀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캐나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5일 만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캐나다의 하원은 "집단 안보의 효율성을 과시하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조치

26) Roy E. Appleman, 『East of Chosin』 (Texas: A. M. Univ Press, 1987), pp. 333-334.

도 적극 지지한다”는 만장일치로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였다. 루이 스테판 생 로랑(Louis S tephen St. Laurent) 총리는 6월 30일 “유엔의 권위 아래 평화회복을 위한 집단안보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최초로 파견된 제2대대(PPCLI)는 영국 제27여단에 소속돼 작전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였다. 제2대대는 1951년 3월 초 가평 진출을 기도하던 중공군을 차단함으로써 중공군의 4월 공세를 저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전투의 공로를 인정받아 캐나다 제2대대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았고 한국 정부도 677고지 아래쪽에 캐나다 대대 참전비를 건립하였다. 1951년 5월 초 캐나다 제25여단의 본대는 한국에 도착한 후 새로 창설된 영연방 제1사단 일부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캐나다는 소규모이지만 미국, 호주에 이어 3번째로 육·해·공군을 6·25전쟁에 파견한 국가였다.

‘Vandoos’라는 별칭을 가진 Royal 22nd Regiment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여하였던 폴 레이천 캐나다 재향군인회 회원²⁷⁾은 카트콕과 함께 생활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1952년 4월 부산에 도착한 폴 회장은 당시 캐나다 군이 처음에는 미군 군복과 헬멧, 카빈 소총을 휴대하였는데 북한군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영국군 군복과 무기로 바뀌 전선에 나섰을 때는 북한군이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북한군이 미군과 전투를 벌이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하였다.

폴 회장은 당시 카트콕이 전투 요원으로 캐나다 부대에도 배속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카트콕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한국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시기에 말라리아에 걸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치료를 받고 부대에 복귀하였을 때는 카트콕이 떠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27) 폴 레이천 캐나다 재향군인회 회원 인터뷰(2008년 6월 25일 서울 कै피탈호텔).

(3) 영국

6·25전쟁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리 유엔 사무총장은 ‘6·28 대한군 사원조 결의’에 의거해 7월 14일 영국에 지상군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였다. 영국 정부는 7월 26일 영연방 제29여단의 출병을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한국 이동에 어려움이 산적하였다. 이에 따라 8월 20일 긴급 조치를 발동해 홍콩에 주둔 중인 부대 중 2개 보병대대를 선발해 선발대로서 한국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홍콩에 주둔한 영국 제40보병사단은 제27여단 본부와 예하부대인 아질대대(1st Battalions of the Argyll and Sutherland Highlanders Regiment) 그리고 미들섹스 대대(1st Battalions of the Middlesex Regiment)를 항공모함 유니콘 호와 순양함 세일론 호에 싣고 한국에 도착하였다.

영국군은 9월 초 본국에 대기 중이던 제41해병독립특공대에서 장교 14명과 병사 211명을 선발, 특수 임무부대를 편성한 뒤 일본의 미극동 해군에 배속시켰다. 또 브로디 장군이 이끄는 영연방 제29여단은 1개월 항해 끝에 11월 3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또한 영국은 영연방인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참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연방 제27여단은 미1기병사단에 배속돼 현풍 북쪽 신당동 일대의 제23연대 제3대대 지역을 인수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에 투입되었다. 영국군은 정주·박천 전투, 신둔리 전투, 설마리 전투, 가평 전투 등에서 뛰어난 전과를 올렸다. 엘리자베스 2세는 1987년 3월 영국 국교회의 성당인 세인트 폴 대성당에 한국전쟁기념관(Korean War Memorial)을 설치하였다.

6·25전쟁 당시 영국군 군인들의 한국인 접촉은 3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① 수백 명의 KSC 집꾼들이 각 대대에 배치돼 참호와 병커를 파고 음식과 탄약을 날랐다. ② 한국인 소년들이 음식과 의복, 숙소를 제공받는 대가로 장교와 선임 하사관들을 위해 세탁을 비롯한 허드렛일을 맡았다. ③

영국군에 배속된 한국군 요원 이른바 '카트콰'(KATCOM) 100명이 1953년 3월 각 대대에 충원되었다.²⁸⁾ 이들은 영국군 군복을 착용하고 영국군 음식을 먹었으나 한국 육군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영연방 정부는 1952년 7월부터 카트콰 제도를 검토했으나 8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100명의 한국군이 신병 교육을 마치고 나서 영연방 부대에 100명씩 배치되었다.²⁹⁾

모든 보병 가운데 영국군들은 언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RCR과 r22eR 지휘관이 주저했지만 카트콰는 영연방 부대 전체적으로 배치되었고 작전 수행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워커 유엔군 사령관이 9월 16일 역공세를 취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을 때 영국군 27여단은 여단 본부와 2개의 대대로 구성되었다. 이들 2개 대대는 홍콩으로부터 도착하였고 미군의 탱크와 대포, 한국 경찰 병력의 지원을 받았다.

2008년 6월 25일 국제 한국전참전향군연맹(IFKWVA) 회장에 취임한 영국인 조지 M. 가드는 King's Liverpool 연대 12소대에 배속되었던 박찬홍(Pak Chan Hung) 병장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기억해 냈다. 박찬홍 병장과는 전쟁이 끝난 이후 소식이 끊겼지만 아주 훌륭한 군인(great soldier)이었다면서 같은 분대에 배속되었던 다른 한국군 카트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³⁰⁾

28) Anthony Farrar-Hockle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1995, LONDON: HMSO, p. 375.

29) 카트콰 초대 파견대장 정규호씨 등의 인터뷰로 미뤄볼 때 한국전쟁 발발 직후 비공식적으로 한국군이 영연방 부대에 파견됐으나 공식적으로 카트콰가 창설된 것은 1953년 3월로 추정된다.

30) 영국군 참전용사 조지 가드 인터뷰(2008년 6월 25일 서울 캐피탈호텔).

(4) 벨기에·룩셈부르크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1951년 1월 31일 합동으로 1개 대대를 파견하였다. 당시 벨기에에는 지상군 480여 명, 룩셈부르크는 48명을 각각 투입하였다. 룩셈부르크가 48명으로 편성된 1개 소대를 벨기에군에 파견해 벨기에 대대를 만들었다. 벨기에 대대는 죽전리로 이동해 미3사단 제15연대에 배속돼 1951년 3월 6일 리퍼 작전에 참가하였다.

3월 30일에는 영연방 제29여단에 배속돼 4월 19일 임진강 북쪽의 전초진지인 금굴산 지역에 배치됐으나 4월 22일 중공군의 4월 공세로 퇴로가 차단되는 바람에 임진강 북쪽에 고립되는 위기를 맞았다. 8월 19일에는 제1차 참전기간이 만료된 벨기에군 424명과 룩셈부르크군 43명이 귀국해 병력이 500명으로 축소됐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미군 장비로 재무장한 뒤 8월 31일 미3사단에 배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10월 10일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평강 남쪽 학당리로 이동해 388고지에 전초진지를 구축하였다. 중공군은 388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11일 새벽부터 3일 동안 무려 4차례에 걸쳐 파상 공세를 퍼부었으나 탄막사격과 백병전으로 맞서 중공군을 격퇴함으로써 대대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1952년 한해 동안 임진강 'S'자(字)형 만곡부에서 큰 전투 없이 수색정찰 활동에 주력하던 중 27명 전사, 124명의 부상이라는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대부분 적군의 포격에 의한 희생으로 밝혀졌다. 대대는 1953년 1월 26일 김화 지역으로 이동해 2월 26일 김화 서쪽 잣골 부근의 주저항선에 배치되었다. 3월 9일 중공군은 카롤 전초 진지를 탈취하기 위해 3차례 공격을 감행했으나 대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중공군은 4월 18일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을 재개해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고 적군 30여 명이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전투가 끝남에 따라 대대기에는 '임진강', '학당리'에 이어 '잣골'이라고 새겨진 전투 리본을 장식하였다.

미 제7연대가 6월 14일 갓골 지역을 중공군에게 함락당하자 현지 지형에 익숙한 벨기에 대대가 이를 재탈환하기 위해 7월 2일 기습공격을 감행한 결과 카를 전초기지에는 탈환했으나 다시 적군의 역습을 받고 물러났다.

벨기에 정부는 1966년 5월 수도인 브뤼셀 외곽지대인 Square de Coree Woluwe st. Pierre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건립하였다. 벨기에 참전기념비에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벨기에 군인들의 명단을 새겨 넣었는데 특이한 점은 벨기에 부대에 배속됐던 전사한 카투사들의 영문 이름과 사망일자, 계급 등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표 2〉 참조).

육군본부에 의뢰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차용환의 경우 경기 양주군 출신으로 미3사단에 배속됐던 카투사로서 군번은 K1160025로 확인되었다.³¹⁾ 서울 용산 출신 김석준(K1160182)과 충남 대전 출신 김형(K1160178)은 모두 미3사단에 배속됐던 카투사들이었고 평북에서 월남한 김웅용(K1107597)은 미25사단, 서울 동대문구 출신 송일동(K1160183)은 미1기갑사단에 각각 배속됐으나 벨기에 부대에서 전사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2> 벨기에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카투사 명단³²⁾

한국명	현지 표기	사망일자(계급)
차용환	Cha yong hwan	1953년 3월 9일 사망(병장)
장보황	Chang bo hwang	1952년 9월 26일 사망(일병)
김웅용	Kim ung yong	1952년 9월 26일 사망(일병)
김창웅	Kim chang yung	1952년 9월 26일 사망(하사)
김석준	Kim suk jun	1952년 12월 16일 사망(하사)
김용	Kim yong	1952년 12월 16일 사망(하사)
김귀영	Kim kuy yung	1953년 3월 25일 사망(일병)
김현	Kim hoyn	1953년 4월 8일 사망(하사)
송일동	Song il dong	1952년 12월 19일 사망(하사)

31) 육군본부 서면인터뷰(2008년 6월 15일).

32) 주벨기에대한민국대사관 이메일 인터뷰(2008년 6월 4일).

아울러 장보황과 김창웅, 김용, 김귀영 등은 영문 표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육군본부 병사기록 카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벨기에 정부 및 한국 국방부 등이 공동으로 조사작업을 벌일 필요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1975년 9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20m 높이 참전비를 건립하였다.

(5) 프랑스

1950년 7월 22일 영국과 터키, 호주에 이어 프랑스는 한국군 참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2차 대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도차이나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다.

프랑스 육군 참모총장 블랑크는 기존의 전투부대 대신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가운데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프랑스 외인부대 감찰관이었던 몽클라르 중장은 이 대대 지휘관을 지원해 스스로 육군 중령이 되기를 자청하였다.

그는 1940년 프랑스군이 독일군과 싸워 대승한 '나르빅'(Narvick)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2차례 세계대전에서 17차례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은 불사조로 유명하였다. 계급은 비록 육군 중령이었으나 유엔군 사령부와 미8군 장병들은 그의 특이한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몽클라르 장군'으로 불렸다.³³⁾

프랑스 대대는 11월 29일 부산에 도착했고 수원에서 재집결해 미2보병사단 23연대의 작전지휘권 통제를 받게 되었다. 프랑스 대대는 1951년 원주 전투에 참가하였고 중공군 진주를 막아내었다. 프랑스 대대는 이어 트윈터널 전투(1951년 2월 1~2일)와 지평리 전투(1951년 2월 3~16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였다.

33) 국가보훈처, 『그리스군 6·25전쟁 참전사』(서울: 2006년), p. 165.

1951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프랑스 대대는 단장의 능선(Heart break ridge) 전투에서 야간침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명성을 재확인하였다. 1952년 11월 프랑스 대대는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롤랑 가브리엘 로프 부관을 포함해 47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중공군의 남하를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 역시 200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프랑스군 3,421명이 한국전에 참여해 이 가운데 287명이 사망하고 1,356명이 부상하였으며 7명이 실종되었다. 12명은 전쟁포로가 되는 고통을 겪어야 하였다.

프랑스 대대에 카투사들이 배속되었다는 사실은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평양출신 참전용사 임응상(林應祥, 1932년생)씨는 1950년 12월 30일 대구 신병훈련소 제10교육대(달성초등학교 자리)에서 15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1951년 2월 10일 동기생 100명과 함께 프랑스 대대에 배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동기생 100명은 네덜란드 대대에 배속되었다고 증언하였다.³⁴⁾

임씨 등은 미2사단 제23연대 보충대로 이동했는데 그야말로 인원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쳐 곧바로 프랑스 대대에 배속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미군 사단에 배속됐다 프랑스 대대에 재(再)배속된 카투사 유엔군 파견의 전형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임씨와 함께 입대한 참전용사 박동하씨(군번 0184082)는 대구교육대 출신들이 프랑스 대대에 배속되기 1주일 전에 K군번 카투사 30명 가량이 먼저 도착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³⁵⁾ 임씨가 경기도 양평 지평리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대대에 배치된 다음날인 1951년 2월 13일 곧바로 교전이 벌어졌다. 임씨를 비롯한 한국군은 당시 프랑스 병사 사이에 한명씩 배치되어 전투를 벌였다. 임씨는 당시 중공군 피리소리에 주눅이 들었으나

34) 참전용사 임응상 전화인터뷰(2008년 5월 20일).
35) 참전용사 박동하 전화인터뷰(2008년 5월 20일).

프랑스군과 함께 행동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없어졌고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특별한 인종 차별은 경험하지 못하였고 처우와 급식 등은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말하였다.

한국군에서 배치될 당시에는 한국군 중대장 한운찬(韓允燦) 중위가 함께 임명되었으나 프랑스 대대에서 지휘관을 별도로 임명하는 바람에 한 중위는 한국군으로 돌아갔다. 임씨가 소속된 부대의 공식 명칭은 미 제2보병사단 제23보병연대 프랑스대대 제2중대(한국군 중대)였다.

<표 3> 프랑스군 한국군 중대 편성표³⁶⁾

한국군 중대 (중대장 : 한운찬 중위)	제3소대 (소대장 : 이택규 이등상사)	제1분대장(성명미상): 이응섭, 전규칠, 윤충국, 김홍식, 백낙준, 이상현
		제2분대장(김윤만 이등상사): 김광한, 이응우, 서석홍, 최우섭, 문석영, 최광선, 유제봉, 추칠동, 한성근, 하재근, 이재열
		제3분대장(성명미상): 최오섭, 최완섭, 임진재, 김봉오, 김봉덕, 김배균, 김만복, 문진석, 박동하, 길봉근, 조대삼.
		경기관총분대: 분대장(성명미상), 제1번사수: 김광조, 제2번사수: 임응상, 조정여, 최계섭, 서춘봉, 김덕배
	중화기소대 (소대장 : 성명미상)	박사준, 양정근, 김신원, 강만복
	위생소대 (소대장 : 성명미상)	박문준, 이병선, 박인학, 박종민, 성찬영, 유희준, 김진기, 오봉린, 유명준, 차치돈, 이석신, 이상경, 이상복, 이상근, 김춘평, 도만

36) 참전용사 이정환. 한국전 UN 프랑스군 참전기념사업회 2008년 5월 15일 명단제공.

당시 프랑스 대대에 배속되었던 참전 카투사들은 한국군은 물론 프랑스 군들도 군복과 무기, 식량 등을 미군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6) 그리스

그리스는 6·25전쟁에 지상군 1개 대대와 수송기 1개 편대를 파병하였다. 6·25전쟁에 참여한 그리스군의 명칭은 'Hellenic Forces' 이었고 보병부대는 'Hellenic Battalion' 그리고 공군부대는 '13th Greek flight, Royal Hellenic Air Force'로 지칭되었다.

그리스 대대는 적응훈련을 거쳐 미1기병사단에 배속되었고 김해 K-1 공군기지 인근에 설치된 유엔군 임시 수용부대로 이동해 한국의 기상과 지형, 전황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그리스 대대는 경기도 이천 부근 381고지 방어전투에서 전투 능력을 인정받았고 적의 주요 거점인 입진강 부근 고양대·대노리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그리스 참전용사인 스틸리아노스 드라코스 예비역 소장은 당시 그리스군 대대 단위에 50명의 카투사들이 배속되었고 참호에 무기구축과 포로 심문 역할 등을 맡았다고 주장하였다.³⁷⁾

한편 서울상주 그리스 무관인 엘레프 페리오스 폴리타리디스 대령은 “그리스군에 파견되었던 카투사 가운데 5~7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국군 요원의 그리스군 배속 사실을 뒷받침하였다.³⁸⁾

37) 그리스 참전용사 스틸리아노스 드라코스 인터뷰(2008년 6월 25일 서울 캐피탈호텔).

38) 주한 그리스 무관 엘레프 페리오스 폴리타리디스 대령 인터뷰(2008년 6월 25일, 서울 캐피탈호텔).

(7) 네덜란드

유엔군네덜란드파견대(NDVN)는 1950년 9월 27일 지원자 16,225명 가운데 3,418명을 선발해 창설되었다. 636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파견대가 10월 26일 네덜란드를 첫 출발했고 마지막 파견대(143명)는 1954년 7월 떠났기 때문에 일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실제 전투에 참가한 인원은 2,980명으로 희생자는 총 11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15명은 부산 유엔군묘지에 안장돼 있다. 미2사단 38보병연대에 배속된 NDVN은 실제로 대대급 화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8군은 카투사 병력을 파견해 전력을 보강시켰다. 파견된 카투사 가운데 20명은 네덜란드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던 중 사망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2차 대전 격전지로 유명한 네덜란드 중부 아르헨 인근 샤르스베르겐의 오라네가 막사에 한국전쟁 기념관을 세우고 한국어와 네덜란드어 2개 국어로 명판(銘板)을 만들어 전사한 카투사들을 추모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병력과 함께 전투 중 사망한 카투사 20명에게 외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자유훈장'(the Cross for Justice and Freedom)을 수여하였다.³⁹⁾

네덜란드 국방부 군사문서에는 Sun Yup Paik-generaal, Joon Shik Lee-generaal majoor en, Chin Yong Pak-major 등 3명의 장군·장교들에게 메달을 수여한 기록이 남아 있다.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는 이들과 함께 네덜란드 부대에 배속된 카투사 178명에게 동일한 메달을 수여했다고 확인했으나 178명의 명단이 별도로 수록된 해당 문서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문서번호(36817, Exh.2 Dec.52 Nr.107)는 확인해 주었다.⁴⁰⁾

네덜란드 부대에 파견된 CTC/KSC 요원 20명도 6·25전쟁 중 목숨을 잃었다. 카투사들을 포함해 네덜란드 병력 전체의 희생자는 모두 163명에 달

39) 인터넷 <http://www.korean-war.com/netherlands.html> (검색일 2008년 5월 15일).

40) 네덜란드 Bureau Centraal Archiefdepot 이메일 인터뷰(2008년 6월 19일 답신).

하였다. 이는 네덜란드가 참여한 전투 가운데 가장 큰 희생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다.⁴¹⁾

(8) 호 주

유엔의 한국위원단 회원국 호주는 남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군사조사단에 2명의 장교를 파견해 한반도 정세에 비교적 밝은 편이었다.

호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점령군 임무를 수행한 호주 제76보병대대의 지원 병력 그리고 호주 본국에서의 일부 병력을 보충해 구성한 제3대대를 1950년 9월 27일 한국에 상륙시켰다. 영연방 제27여단에 배속된 호주 대대는 사리원 전투에서 백병전에 참가해 퇴각 중인 북한군에 타격을 입혀 미24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호주 대대는 이후 영유리 전투와 박천 전투, 가평 전투, 마량산 전투 등에서 발군의 전투 기량을 발휘하였다.

한국군 요원들이 유엔군 호주 부대에서 활동하였던 사실은 '6·25전쟁 영연방군 참전유공자협회 KATCOM' 회장 황청학(78)씨를 인터뷰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⁴²⁾

황씨는 1952년 11월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 4주(22연대), 후반기 4주(25연대) 훈련을 각각 마치고 경기도 덕정 소재 영연방사단 본부에 배치되었다. 황씨는 덕정 소재 영연방사단 본부에서 2개월 훈련을 받은 뒤 호주군 3대대 A중대에 배속됐고 곧바로 경기도 적성의 고왕산(355고지) 전투에 투입됐다고 한다.

1952년 당시 영국군 부대에는 정규호 소령⁴³⁾을 비롯 손상섭 대위와 민창기 대위, 김성진 대위,⁴⁴⁾ 주동운 대위 그리고 경리 장교(신원 미확인) 1명

이 배치돼 한국군 병사들의 진급과 휴가, 징계, 그리고 급료 문제 등을 관리하였다.

황씨는 1개 분대 단위에 카트콤 1명씩 배속되었으며 영국군과 호주군, 캐나다군 등에 150명 단위로 배속된 반면 같은 영연방이지만 뉴질랜드 군에는 카트콤이 배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호주군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많았으나 일본 점령군 역할을 맡았던 제76보병대대 출신 호주군인들이 간단한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우가 있어 카트콤과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호주 국립문서보관소가 보관 중인 문서 가운데 'Honors and Awards for Korean soldiers attached to 1 Commonwealth division'(Serial Number A816)을 통해 호주 정부가 한국군 카투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국립문서보관소는 해당 문서의 열람 여부(Access Status)에 대해 "not yet examined" 상태로 표시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 국립문서보관소에는 이밖에도 'Korean soldiers attached to 1Commonwealth division'(Serial Number A 201), 'Korean personnel attachment to BCFK'(Serial Number A816) 등 관련 문서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논문작성 과정에서 확인되었다.⁴⁵⁾

(9) 카투사 미파견 국가들

한편 2008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포병대대 참전용사인 Lawrence L. Stack, 필리핀 한국 원정군(PEFTOK)으로 파견되었던 참전용사 빅토리노 T. 아자다 예비역 준장, 사관학교 졸업반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하였던 태국의 분차이 디스타쿨(Boonchai Distakul) 예비역 육군 소장,

41) 인터넷 <http://www.korean-war.com/netherlands.html> (검색일 2008년 5월 17일).

42) 카트콤 회장 황청학 인터뷰(2008년 5월 28일 서울 종로).

43) 시카고 총영사 역임.

44) 문화공보부 장관·연합통신 사장 역임.

45) 호주국립문서보관소(www.naa.gov.au) (검색일 2008년 5월 25일).

에말라에루 워라데 에티오피아한국전 참전용사협회(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of Ethiopia) 회장, 국제한국전참전향군연맹(IFKWVA) 회장(2000. 6~2008. 6)을 역임한 존 렐로(John E. Lello) 남아공 예비역 공군 준장, 터키군 통역을 맡았던 백상기 주한터키공화국대사관 고문, 콜롬비아 재향군인회 소속 참전용사 Guillermo Rodriguez Guzman 등은 6·25전쟁 당시 자국 부대에 카투사 요원들이 배속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⁴⁶⁾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며 만약 이들 부대에 카투사들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어떤 배경에서였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5. 맺 음 말

한국군 요원들이 한국전쟁 중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 Army)라는 이름으로 미군 부대에 파견돼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카투사들이 영연방 국가들(Commonwealth Nations)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등 10여 개국 유엔 회원군 부대에도 배속되거나 재배속돼 이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영연방은 미국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한국군 요원들을 ‘카트콤’(KATCOM: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Commonwealth Division)이라고 불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유엔군 부대들에 카투사들이 파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전쟁시기 카투사 파견 업무를 맡았던 육군본부의 ‘US 인사

과’ 업무 자료들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유엔군 부대에 배속됐던 대다수 카투사들은 자신이 왜 피부색깔과 언어, 무기 등이 생소한 외국 군인들과 함께 총을 들고 나섰어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카투사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유엔군’ 또는 고향 위주로 선발된 사례를 들어 ‘유엔군 학도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 등은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카투사들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벨기에는 한국전쟁기념비에 자국 군인들의 이름과 함께 카투사 명단까지 새겨 넣은 사실이 이번 논문 작성 과정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전체 16개 참전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국 유엔군 부대들에 카투사가 파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유엔군 부대에는 파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군력을 파견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대에 카투사들이 파견되지 않은 배경에는 납득이 가지만 필리핀과 태국, 터키 등 아시아 지역 유엔군 부대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추가적인 연구 활동이 요구된다.

6·25전쟁은 1945년 10월 24일 출범한 유엔(UN)이 최초로 연합군을 결성해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깃발을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엔군 부대에 파견된 한국군 요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미국의 역할과 업적만을 강조하는 바람에 유엔과 나머지 유엔 회원국들의 공로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존의 6·25전쟁에 대한 연구들은 이 같은 유엔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고 이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산화한 카투사들도 관심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만난 유엔 사령부와 국방부, 육군본부, 보훈처 담당자 등 실무자들도 유엔군에 배속된 카투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정도다.

46) 한국전 참전용사일동 인터뷰(2008년 6월 25일 서울 캐피탈호텔).

하지만 서울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참전 15개국의 서울 주재 대사관과 현지의 한국 대사관, 각국의 국립문서보관서,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카투사 참전용사, 생존한 국방부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유엔군에 배속된 카투사 활약상이 확인되었다.

극히 제한된 내용이지만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서한 등에서도 늦게나마 유엔 참전국에 배속된 카투사들의 실태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6·25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각국의 참전용사들은 매년 한국을 방문해 전적지를 둘러보거나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 각 국가에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펼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던 카투사는 외국의 한국전쟁 전우(戰友)는 물론 한국 정부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 자국의 힘으로만 국가방위를 달성한다는 의미의 자주 국방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 홀로 국방'이라는 형태를 지닌다. 하지만 자주 국방을 실현시키고 있는 국가는 이상형(Ideal type)에서만 존재할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주 국방을 내세우는 북한도 냉전시대에는 소련·중국과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국방을 확보해왔고 탈냉전 이후에도 자력에 의존하지만 중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 방위의 원칙으로서 타국에 의존함이 없이 호주를 방어할 수 있는 자체의 능력을 구비하되 ANZUS 동맹과 영연방 5개국과의 동맹 내에서 자위적 방위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터키는 국방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고유의 국방을 지향하여 국가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영토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방위체제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들은 국방을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집단안보, 세력균형, 동맹정책 등을 고려한다. 설사 평화시

에는 '나 홀로 국방'을 채택하고 실천하는 국가들이 있고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은 비(非)동맹권과 중립국도 있지만 전시에는 이들 국가조차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거나 동맹을 결성해 전쟁을 치른 역사적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혼자서 결정과 힘만으로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에서 집단안보 체제가 실현된 첫 번째이자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초로 구성된 유엔군의 한국전쟁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카투사들의 존재와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고투고일 : 2008. 9. 10, 심사수정일 : 2008. 10. 14, 게재확정일 : 2008. 11. 17)

주제어 : 카투사, 주한미군, 한국전쟁, 유엔, 카트콤, 재일학도의용군, 소년병, 맥아더 장군, 작전 지휘권, 이승만 대통령

<ABSTRACT>

A Study on the KATUSA in the Korean War

Moon, Kwan-hyun

It is a well documented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ROK) Army service members took part in various battles during the Korean War, including the 1950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as the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United States(US) Army(KATUSA). Since then, the KATUSA program as become a key element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at bridges the two nation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fact that the ROK service members also fought in the war hand-in-hand with forces from other nations that sent troops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such as France, Belgium, Australia, the Netherlands and nation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nations forming the British Commonwealth used to call those ROK troops assigned to their units as the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the Commonwealth Division(KATCOM) to define them from those assigned to the US Army.

Considering these facts, one can safely assume the ROK troops were assigned to most of nations of the UN Allied,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their traces as the Army Headquarters maintain few documents of the US personnel office,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handling of issues related to the KATUSA program.

In many cases, those ROK soldiers, who were assigned to the UN Allied Forces, also did not understand why they were asked to fight with foreign

troops who used different languages and weapon system and had different color of skin. Some of those troops used to call themselves “the UN student soldiers” as most of them were selected for their high academic background.

Still, it was confirmed for fist time while researching for this paper that Australia and the Netherlands awarded medals to the ROK service members that fought in the war with their forces while Belgium engraved the names of their ROK augmenters along with the names of their own troops in its Korean War Memorial Monument.

The Korean War marks a significant page in the history of the UN, in which the world body defended a democratic nation from a communist invasion by forming a multi-national coali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it was established on October 24, 1945. The ROK troops assigned to the UN Forces were a vital element in that historic process.

Yet, the studies about the Korean War have been focused too much on the US, its role and its achievements, thus neglecting the deeds of the UN and other countries of the UNC.

Key Words : KATUSA, USFK, The Korean War, United Nations(UN), KATCOM, Student Volunteer Soldiers in Japan, Boy Soldier, General McArthur, Operational Control (OPCON), President *Syngman Rhee*